



Hello! I am Sister Mary Helen O'Donnell. My Korean name is Oh So Me which means "Beautiful Smile", a name given to me by Sister Lee, Shin Ja when we lived together in Kang Jin many years ago. I was a missionary in Korea from 1964 until 1976 where I taught English at St. Joseph School. I volunteered and was missioned to Korea immediately after making final vows when I was 26 years old.



I entered our Community on September 8, 1956. I was blessed to have the Sisters of Charity as teachers from grade school through college. Initially, I thought God was calling me to a missionary community. My parents and three siblings were happy



with my final choice! I thank God every day that I am a Sister of Charity and was blessed to become a missionary also!

Since leaving Korea in 1976 to work in pastoral ministry, I served for 12 years in the Archdiocese of Baltimore.

After returning to Pennsylvania, I got a degree in Social Work and counseled adults and especially

children. Before retiring, I was blessed to work in the Extra Mile Program in the Pittsburgh



Diocese serving in two schools doing school counseling and acting as librarian.

While living at Caritas Christi I was asked to assist Sister Patricia Mary Wilson in her very creative idea of Conversation Partners. My first partner was Sr. Choi, Yeon Jeong who



is also my prayer partner. It was a blessing to finally meet her when she visited here before making final vows. My present partner is Sr. Jeon, Ji Yeong who is preparing for final vows. Talking to Sr. Ji Yeong through the Conversation Partners program is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get to know each other! I taught English to students at St. Joseph School in Kang Jin and now I feel so blessed to again have lively conversations in English with my Korean Conversation Partner, Sister Ji Yeong! It's so enjoyable!



안녕하세요! 메리 헬렌 오도넬 Mary Helen O'Donnell 수녀입니다.

저의 한국 이름은 오소미예요. “아름다운 미소”라는 뜻이지요. 오래전에 강진에서 살 때, 이신자 수녀님이 저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저는 1964년부터 1976년까지 성요셉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한국 선교를 했어요. 26살에 종신서원을 하고 난 직후, 한국 선교를 자원하고 파견을 받았지요.

저는 1956년 9월 8일에 입회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 시절까지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께 배웠어요. 큰 축복이었지요! 사실 처음에는 하느님께서 저를 선교



수녀회로 부르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사랑의 수녀가 되기로 결심했고, 저의 부모님과 세 형제는 제 선택에 모두 기뻐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의 수녀이자 선교사가 되도록 축복을 내려 주신 하느님께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1976년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12년 동안 볼티모어 대교구에서 본당 사도직을 했고, 그 후 펜실베이니아주로 돌아와서 사회복지 학위를 따고 성인 상담과 특별히 어린이 상담을 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피츠버그교구의 두 학교에서 봉사하는 엑스트라 마일 프로그램 Extra Mile Program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두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도서관 사서로 봉사할 수 있었지요.



까리타스 크리스티에 살면서 패트리샤 메리 윌슨 Patricia Mary Wilson 수녀님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든 양 관구의 대화 파트너 프로그램을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의



첫 대화 파트너는 제 기도 파트너이기도 한 최연정 수녀님이었어요. 수녀님이 종신서원 전에 모원을 방문하면서 수녀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은 큰 축복이었어요. 지금 대화 파트너는 종신서원을 준비하고 있는 전지영 수녀님이예요. 지영 수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 강진 성 요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지금은 다시 전지영 수녀님과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깊은 하느님의 축복을 느낍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해요!